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金政策轉換
日銀正貨準備活用

一

近衛內閣의 金政策은 劃期的 大轉換을 보게되엿다 지난 十五日의 中央物價委員會에서 輸出品原料輸入上 必要에依하야日銀의 正貨準備活用을 決議하고 이것을 答申한데 對하야 政府는 十九日閣議의承認을 어더 아래와가튼方策을 直時 實施할것을 池田藏相談으로 發表하얏다

『日銀正貨準備中 三億圓을限度로하야 同行에 外國爲替基金勘定을 設置하고 輸出用原料輸入을 爲하야 廻轉的으로 活用한다』

이는 昨年特別議會에서 金準備評價法案이 通過되어 從來 七百五十미리그람으로써 一圓으로 評價하든것을 二百九十미리그람으로 換算하얏고 同時에 鮮銀、臺銀의保有까지 集中한結果 七億四千七百萬圓의 金資金特別會計가 新設되고 日銀의 正貨準備는 八億圓이되엇든것이다.

二

今年上半期間의 貿易實績을 보면 輸出累計十二億八千七百萬圓 輸入累計十四億八千三百萬圓、入超一億九千五百萬圓으로서 國際收支의均衡이라는觀點에서보면 顯著히改善되엿다고하겟지만 貿易總額의 見地에서보면 輸入이前年에 比하야 三割三分九厘의 減少로 輸入抑制政策强化의 效果를보인 反面에輸出도(一)輸出用原料買入難 (二)海外不況 (三)生産費의高騰 (四)日本品『뽀이코트』運動發展等諸原因에依하야 稀有의不振狀態이어서 前年에比하야 一割九分六厘의減少를示하얏다.

三

이러한貿易總體의 大委縮現象은 戰時下貿易으로서 어느程度까지는不得已한 現象이라할지라도 今後許多한 問題를惹起할것이다. 即 政府가 最近決定한 物資總動員計劃에依하면 國內의物資消費節約과共히 軍需資材및輸出用原料資材의 充足에 全力을傾注케되엇스므로 從來의 輸入抑制一貫의 機會主義的 貿易統制政策을緩和하고 貿易의一時的逆調를 犧牲하고서라도 輸出用原料의流入을圖하야 써 輸出市場의確保伸長을 圖한다는 根本的方針을決定케된것이다. 이때문에 對英一志二片의 爲替水準이깨어저서는안되겟스므로 對外『크레디트』設定을 期待할수박게업고 新産金만가지고는 不足하겟스니까 日銀의正貨準備中에서 三億圓을限度로해서 活用하자는것이다.

四

正貨準備活用에 對하야 池田藏相이나 結城日銀總裁는 말하되 『通貨活用에는 조곰도影響이업다』고한다. 이며 金本位를離脫한以上 우리가 每日使用코잇는 紙幣와正貨準備와는 아모樣도업고 日銀地下室에死藏되엇든 金塊가八分二釐 外國으로 나가드래도 무슨 相關이 잇겟느냐는 樂觀論이 잇슬뿐아니라 金은 쇠어도 鐵이나 棉花나 고무를 사올수업게 되기前에 正貨準備에 손을 대인것은 英斷이라는 讚辭까지 一部에는 잇는모양이다.

正貨準備를 減해도 아모危險이 업다고 一般이 認識케된것은 자못 注目되는일이지만 正貨準備活用效果에 對하야서는 (一)貿易不振의 重要原因의 하나인海外不況이 急好轉되기 어려운것 (二)市價를 徹底的으로 低下해야만 輸出을 增進시킬수잇슬것 (三)日本品『뽀이코트』緩和가 어려운것等 事情에 依하야 急速한 貿易改善을 期待할수 잇슬지 疑問이 아닐수 업다.

砲兵、機械化部隊等
蘇、國境兵力增强
我方隱忍、回答을苦待

【○○二十日同盟特派員發】 十九日夜부터 張鼓峯一帶에 兵力을 集結하고잇는 蘇聯側은 二十日朝來 益益 活潑한動向을 보이며 同日 午前中에는 포셋트灣에 一千五百噸級의 警備船三雙이 入港하엿스며 圖們江下流 江口附近에도 相當數의 砲兵部隊를 配置하고 國境線警備를 嚴重히하고잇는것이 判明되엿다 그리고 煙秋와밋 슬라베안카 方面의 機械化部隊도 行動을 開始한것가티 觀測된다

【○○廿日同盟特派員發】 滿領張鼓峯附近에 兵力을 增强하고잇는 蘇聯軍은 二十日 朝來슬라야카方面으로부터로 推測되는 約六十臺로써 琿春東方約三〇킬로되는 馬滴達方面 國境으로向하야 軍事輸送을 開始하엿다

【○○二十日同盟派員發】 滿領張鼓峯을 不法占據하야 陣地를 構築中인蘇聯軍은 十九日夜 月明을 利用, 砲兵部隊를 增加하야 山砲를爲始로 速射砲,重機關銃等을 配備하는 一方 塹壕構築에 全力을다하야 二十日午後三時現在의 張鼓峯一帶의 蘇聯兵力은 約三百名을超過하고 또 그後方香山洞部落及 長池東側蘇聯領으로부터도 若干의兵力을 增强하고잇는 模樣이보이어 蘇聯側의行動으로보면 二十日夜부터 二十一日朝에 걸쳐 問題의山附近에 相當한部隊가 增强될것이 明確하다 我方은 蘇聯側의如斯한 挑戰的兵力增强을眼前에보고도 隱忍自重,蘇聯兵의 動向을 嚴重監視하는 同時에 十八日 蘇聯側에 嚴重通告한 回答을 期待하며 遺憾업기를 期하고잇다

滿蘇國境風雲漸急

蘇機又復越境으로
滿洲外務部抗議!

【新京二十日發同盟】 十九日午後三時四十分 蘇聯邦포셋트 灣方面으로부터 飛來한 蘇聯軍用機一臺는 滿蘇國境第九號界標(琿春東南方約二十키로)附近으로부터 滿領內五키로되는 地點에 不法越境約三十分에 亘하야 滿洲國領을 偵察한後 東方으로 向하야 機影을 감춘것을 同地附近監視哨가 確認하엿다

【新京二十日發同盟】 滿蘇東部國境 第九號界標附近에서의 蘇聯飛行機의 不法越境偵察에 對하야 外務當局은 十九日 저녁 在哈外務局特派員에 게訓令을 發하야 哈爾賓駐在 蘇聯總領事代理에게 嚴重抗議케하엿다

"蘇聯의不誠意로 交涉繼續不可能"
滿洲國政府聲明發表

【新京二十四發同盟】 滿洲國外務當局은 張鼓峯事件發生以來 旣히 哈下村特派員으로 하야금 在哈蘇聯總領事 구즈네초프氏에對한 外交交涉經緯에 對하야 二十日 午後六時 外務當局談을 發表한바 外務當局은 蘇聯側의 不誠意로因하야 外交交涉繼續이 不可能하게된 旨를 述한것은注目할만하다

滿洲國政府聲明

十四日의 張鼓峯事件에 關하야 滿洲國側抗議에 對하야 蘇聯側은 何等誠意를 보이지안흠으로 外務當局은 다시蘇聯政府의 回答을 督促하기로 決定하고 十八日 在哈下村特派員에 對하야 再次訓令을 發하엿다 旣報한바와가티 右訓令에 依하야 下村特派員은同日即時 구즈네초프總領事代理의 來訪을求하야『今回蘇聯이 突然不法占據한後 陣地를 構築 其他軍事施設을 敢行하고 잇스믄純然한 第三者로보아 分明히 挑戰的行爲라고 斷定치안흘수업다』하고 蘇聯側의 不法을 詰問한後 事件의 急速且和平的으로解決하기爲하야 爲先蘇聯政府가몬저 이事件이 發生되는날以前即七月十一日以前의 狀態로速히 回復케하기를 要求하고 蘇聯政府가 이에 應치안흘境遇 萬一에 發生하게될 最惡의 事態에 對하야는 그責은全혀 蘇聯側에잇슴을 通告하야 蘇聯側의 反省을 求한데對하야 구즈네초프總領事代理는 現地의 越境事實을 確知할수업다 單只條約論을 根據로『自國領土內에서 發生된事件에關하야 他國의容喙를바들일이아니다』하며 言을左右하야 何等誠意를 보이지안흠으로 거듭下村特派員은 原狀回復에依하는外 本件의急速且平和的解決의方途는업스며 蘇聯側이 이에應치안흘境遇에는 蘇聯側이일부러事件의 擴大를圖謀하는것으로認定치안흘수업다고 斷定하야 蘇聯側의 猛省을 促한바 구즈네초프總領事代理도이를本國政府에傳達할旨를 答하엿다고한다 이가티 事件의 解決은 滿洲國側의 合法妥當한 要求를 容認하야 爲先 事件發生前의 狀態로 撤兵하야 誠意를 보이는以外, 外交的解決의 方途는업는事態에 直面하엿다 滿洲國은 事件解決에 關하야 重大決意를갓게하는同時에 今後 蘇聯側態度에 關하야 重大한 關心을 가지고보는바이다 그리고 附言하건대 我公明且 平和的主張을容認하나 爲先 事件發生前의 原狀으로 回復할것은 國際通念에비치어보아도 當然한바로 何等屈辱이 될것이업스며 蘇聯本國外務人民委員이 充分히 實情을認識하고 또한 蘇聯本國官憲과 極東當局이 充分히 [illegible] 解決을 期待할수 잇는것으로 確信하나 今日 아직 [illegible] 되고잇는것은 特히 蘇聯의 [illegible] 가잇든지 不然이면 國內的事情때문에不法을 固執한것으로 斷定치안흘수업다

木杯下賜

【東京電話同盟】 至嚴하옵신側에서는 앞서 滿洲、上海兩事變에 際하야 私財를 獻納한 功勞로 二十日 左와如히 表彰의 御沙汰가게시옵섯다(朝鮮關係分)

木杯下賜 新田留次郞 外二十名

故南鄕少佐餘榮

【東京電話同盟】 至嚴하옵신側에서는 지난十八日南昌空中戰에서 壯烈無比한 戰死를 遂한我海의 荒鷲南鄕大尉에 對하사 그偉勳을 嘉尙히녀이옵시사 即日少佐에 進級케하옵시며 다시二十日 左와如히特旨敍位의 御沙汰가게서옵섯다

海軍少佐正七位 故 南鄕茂章 敍從六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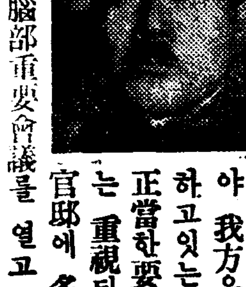
皇太后陛下
戰傷病兵御慰問

【上海二十日發同盟】 皇太后陛下께옵서는 事變勃發以來 前線將士의 勞苦에對하와 日夜軫念하옵시어 屢次慰問品과 繃帶等을 下賜하옵셧는데 今番更히 各野戰病院에서 療養中인 戰傷病兵을 御慰問하옵시고저 御紋章을새이신 御菓子를下賜하사 二十日午前十時 畑上海方面軍 最高指揮官은 ○○에서 宗谷部隊長에게 고마우신 御旨와함께 御菓子를傳達하고 各野戰病院에서는 各病院長이 各戰傷病兵에 傳達하엿다 病床에잇는 白衣勇士들은 皇太后陛下의御仁慈하옵심에 感泣하며 拜受하엿다

皇太子殿下
田母澤御用邸에行啓

【東京電話同盟】 葉山御用邸에 御滯在中이옵신 皇太子殿下께서는 二十日鹽幡大夫 石川、小出兩傳育官 伊地知御養育掛等을 다리시고 午前八時四十分 葉山御用邸 御出門, 同五十五分逗子驛御發 特別列車로 同九時四十八分 品川驛御着後 山手線御經由、午後一時二十分 日光驛御着車, 田母澤御用邸에 行啓하옵셧다 同御用邸에서는 처음의行啓이시므로 町民은 元氣旺盛하게 殿下를奉拜하고 感激하고잇다 殿下께서는 當分間御滯在의 御豫定이시라고 承聞된다

對蘇方針協議次
陸軍首腦部會議



(寫眞은 板垣陸相)

【東京電話同盟】 張鼓峯의 蘇聯兵不法 越境事件에 關하야 我方은 어디까지던지 外交折衝에 依하야 撤退를 要求하고잇는데 蘇聯側은 依然頑固한 態度를 表示하야 我方의 正當한要求를 拒絶하고잇는 關係로 今後의 事態推移如何는 重視되게되엿스므로 板垣陸相은 二十日午後七時 陸相官邸에 多田參謀次長 中村軍務局長 其他關係者를 招致하야 省部首腦部重要會議를 열고 今後의 外交折衝經過如何에 依하야 我方으로서 取할 萬全策에 關하야 重要協議를하고 同八時散會하엿다

板垣陸相參內

【東京電話同盟】 板垣陸相은 二十日午後 宇垣外相과會見後 同四時二十分官中에 參內 天皇陛下께 拜謁하고 所管事項에 對하야 奏上한後 여러가지 御下問에 奉答하고 御前을退下 別室에서 宇佐美侍從武官長과 會見 張鼓峯事件에 對한 蘇聯兵의 不法越境事件에 對하야 詳細告한後 同六時二十五分退出하엿다

戰時下豫算編成
爭奪主義揚棄
總督府各局課自戒乎

十四年度 總督府豫算은 어떠政府의 編成方針의 指示를接하고 水田財務局長이 歸任하는대로 八月부터 編成에着手하기로되여 各局課에서 各其豫算要求資料의 調査를行하고잇는바 各局課의 編成方針은 未曾有의戰時下에잇는만큼 例年과는 매우그態度를달리하고잇다 例年에는 各局課가 案을編成하는데 所謂 豫算爭奪主義를 露骨的으로發揮하야 散項、金額에 모두부질업시多額을 爲主하야 財務局의正式査定까지에는 幾多의 迂餘曲折을經한後 비로소 總督府案의成立을 보게되는데 게다가 大藏省의 苛鐵을加하게되여 官廳通弊의 非難을맛고 잇든것이엇다 그러나 過般來 池田新藏相의事變目的의遂行第一主義를 屢次에亘하야强調、大藏省側決意의 强固함을 表明하고잇는 事實에비치어 이미各局이 모두事變關係以外의出費가 徹底的壓縮을바들것은 避치못할것을알고 各原案作成에當하야는 極히 愼重을期하고잇다 即比較的時局의色彩가薄弱한 局課에 잇서서는 자못自制的態度를 取하야써 豫算全機構에對한 自局課各款項目의 地位、均衡을考慮하야 爭奪主義的羅列을避하고 不要不急事業에對하야는 自發的으로 計畫中止를決定하는等 至今까지 볼수업든紳士的方針으로써 臨하고잇는것은 事變下인때문도잇지만 官廳自戒의 動向이라하야 자못注目된다

中山憲兵司令部
專屬副官榮轉

滿日附로 [illegible] 少佐에昇進한 朝鮮憲兵隊司令部副官 中山[illegible]氏는 憲兵學校學生隊中隊長으로榮轉 十九日 發令되엿다 그後任은 [illegible]

○○上空에
蘇聯機再現

【○○에서二十日同盟特派員發】 지난十八日 蘇聯側으로보낸 使者는 아직歸還치아니하야 緊張된空氣가 漲溢하는 二十日午後十時半 ○○上空에 突然 蘇聯機로 認定되는 飛行機三臺가 飛來하야 附近一帶를 偵察한後 煙秋方面으로 姿態를 감추엇다 이리하야 ○○一帶는 異常한緊張을띠게되엿다

煙秋方向서 蘇機夜間飛翔

十九日午後以來 張鼓峯及그背後一帶地區에서는 蘇聯側의行動이 급작히活況을띄고잇는데 同夜十時三十分頃煙秋方向으로부터 蘇飛行機가 飛翔하야 한시湖方面으로飛去하엿다

軍使에게加害하면
斷乎膺懲할方針
我方、現地交涉强硬主張

【滿蘇國境서廿日同盟特派員發】 十八日蘇聯南部國境築地點으로부터派遣된 軍使는 出發後四十時間을 經過한 現在에 어르기까지아직國境에도 歸還하지안헛다 蘇聯側이 回答할意向이 잇다면 莫斯科政府로부터 駐蘇西代理大使에게直接通達하든지或은 東京駐在蘇聯代理大使를 通하야 日本政府에回答을하든지 또는 在哈蘇聯總領事代理를通하야 滿洲國外務局外交特派員에게通達하든지의 세가지方法이잇다 蘇聯側이 我防衛現地當局의 直接交涉을 無視하고 外交機關을通하야 回答할 境遇에는 二十一日乃至二十二日頃이될것으로觀測되는데 防衛現地當局으로서는 어디까지 現地交涉에依하야 國境紛爭의 解決을지을方針을 堅持하고잇다 그런데 蘇聯側이 萬一 我軍使를 射殺하든가 或은拉致한다든가 일이잇는때에는 斷乎 이에對應할方針을 取하고잇다고한다 그러나 我防衛當局의 主張하는 國境線原狀回復에는 何等領土的野心이업고 다못 蘇聯兵에依하야 不法占據된地域 張鼓峯의 回復을 圖하려는것뿐이며 또 滿蘇國境을넘어 蘇聯內로 進入할 意向도업고 오직原狀復歸에 말미아마國境防衛線을 確保하기爲한實力發動에 不外하다고한다

000487

勞働者、農民用綿品
販賣及加工制限令解除

【東京電話同盟】 商工省에서는 勞働者와農民用 綿製品을 買上키위하야 지난六月二十九日로써 綿製品의 販賣制限令、加工制限令을 公布하바 勞働者農民用買上品目을 決定하엿스므로 買上品以外의 綿製品 販賣及加工制限令을 解除하기로決定、輸出入臨時措置法에 基하야이에關한 省令을 二十一日附로써 公布即日實施한다 省令의 內容은 如左하야 別表品目이 買上品目이며그以外品目이 解除되는것이다

商工省令(昭和十二年 法律第九十二號第二條 規定에依하야如左히定함)

綿絲、綿織物又는 綿메리야쓰로別表에 揭하는것은 地方長官의 許可를 受한境遇에 限하야 綿製品의 販賣制限에關한件又는 綿製品의 加工制限에關한件에 不拘하고此를販賣또는 이에加工함을得함

前項의綿絲、綿織物及 綿메리야스에는 스·파를 混入한것을包含함

附則 本令은 公布의日로부터 此를施行함

別表

綿織絲、綿綿絲에 英式番手二十五番以下의 單絲又는 五十番以下의 合絲를使用한 綿織物로써 左에揭한것

小巾物、綿木綿、飛白木綿、染飛白、縞色木綿、晒及長木綿、綿絲織(도리코-트、荏)小倉織(카루제룸包含) 「메루」안木綿、石底地廣巾物 綿메루、코르덴(咔嘰)、帆布

綿메리야쓰、表絲에英式番手四十番以下의 綿絲를使用 裏絲에英式番手十番以下의 綿絲를使用 二寸一三寸又는一四寸의吊機 又는 둥근지機로써만든것으로 안에털을바친것(但 染色한것은除外)浴用타올、經緯에 英式番手二十番以下의 綿絲를 使用한것으로 一匹(十一枚)[illegible]五十匁以下의것)

小磯大將京都向發

【大阪電話同盟】 一個年[illegible] 在任 二年八個月朝鮮軍司令官의重責을 다하고今番參謀本部附에轉補赴任의途에잇는小磯國昭大將은十九日午後八時四十分大阪에 到着하엿다

夕刊後市況 二十日

◆各地 期米 後止◆

	當限	中限	先限
大阪	—	三三·七〇	三三·六四
釜山	—	—	三三·五〇
群山	—	—	三三·四五
木浦	—	—	三三·二四
下關	—	三三·二七	三五·六
名古	—	—	三五·二九

◆各地 商品 後引◆

	當限	先限
大阪綿業	一六六·〇	一六八·二〇
大阪棉花	—	五六·〇〇
大阪人絹	八八·七〇	八八·五〇
福井人絹	八八·三〇	八八·九〇
橫濱生糸	八二〇·〇〇	八七〇·〇〇

辭令

昭和十三年七月十九日發令
(京畿)總督府道視學官 高田邦彦
任總督府視學官(四等)
命學務局勤務 高田牛稚
任總督府道視學官(四等)
命京畿道在勤 權桂洙
任總督府保健技師
命光州刑務所在勤
(光州)總督府保健技師 尹晏燮
命公州刑務所在勤
總督府師範學校敎諭 田中浩造
任總督府師範學校敎諭(七等)
補京城師範學校敎諭 上田重郞
任京城帝國大學助敎授(六等)
命醫學部勤務 安野權治
任京城帝國大學助敎授(七等)
命醫學部勤務
朝鮮公立高等女學校敎諭 鹿子島顯吾
任朝鮮公立高等女學校敎諭(七等)
補海州幸町公立高等女學校敎諭
總督府稅務監督局技手兼總督府稅務監督局屬 松澤平藏
任總督府稅務監督局技師(七等)
命大邱稅務監督局在勤
總督府江原道郡屬 池田喜善
任總督府道理事官(八等)
命江原道在勤
總督府平安南道視學兼總督府平安南道屬朝鮮公立小學校訓導 韓載經
任總督府郡守(八等)
命平安南道陽德郡在勤
(孟山郡)總督府郡守 崔泰鳳
命平安南道龍岡郡在勤
(陽德)同 全亨淳
命平安南道孟山郡在勤
(慶南道屬兼遞信書記)慶南道事務 川勝雄次郞
任朝鮮土木主事(七等待遇)
補慶尙南道土木主事
(始興)總督府郡守 能川湧之助
陞敍高等官六等
(全南)朝鮮產業技師 梅津力雄
(慶北)朝鮮土木主事 一戶三郞
依願免本職(各通)
總督府鐵道局參事 野方實雄
依願免本官

浪費를省略해서生命保險에

非常時國策遂行의一助로서目下國民貯蓄의增進을眞摯하게부르짓게되엿습니다 이때를당한우리는될수잇는대로消費節約을斷行해서報國之誠을이루지안으면안되게되엿는데貯蓄報國의一方法으로서生命保險을利用하면그것은同時에家庭安泰의基礎도되어서一擧兩全의効果를어둘수가잇게됩니다

一擧而全!
貯蓄報國
家庭安泰

保險料가斷然코싼
愛國生命
本社·東京日比谷
案內書送呈 [illegible]

自然美의 빰으로발라지는
風鳥ホホ紅
六色잇슴
1 로-즈
2 오-가-로-즈
3 만다린로-즈
4 스카-렛드
5 오렌지로-즈
6 안바-로-즈
各 三八전
빰 연지

이연지를쓰시면…
버서지잔습니다
거칠잔습니다
終日美麗을保全합니다
五色잇슴
1 다-크
2 오-렌지
3 오렌지로-즈
4 홍비
5 카-민
各 三八전
各百貨店 化粧品店에잇슴
ガンドーラー·本舖·株式會社·宇野達之助商會·東京·大阪

激流우를쏜살가티 慄然할流筏神技

아차잘못解筏만되면三個月勞働이虛事

山班 第二站 胞胎山 ③

文 李鍾模 寫 崔禧淵

때목은 처음에 「골명」에서떠워내리운다 이「골명」이란는것은 좁은 냇물을막으로 막어서물을만히 가두어두엇이다 여기서 대개 네개혹은다섯개의 때목을 떼워노코 막어둔물을 시간을마추어 조금씩터노는다 그리하야 그물이 하류로흘러나려가서 때목이 떠내려갈만한 수세를보아 비로소 벌부는때를 저어내려가기 시작한다 이물이 내리는 조화를잘마추지안흐면 물보다 때목이먼저나려가서 사고를 이르키는수도잇다 처음에한때가 내려간뒤에 약간의간격을두어서 다시 그다음때가 내려가기로한다 『골명』을 터노흐면 그막어두엇던물이 터노흔 물끗(水端)으로 급격히 노픈곳에서나즌곳으로 흘러내린다 이수세를따라서 때목을 휘저어내리게되는데 이순간 때가떠내려가는 광경은몸사히 화살이쏘빠저나가는것과가티 빨르다 벌부는이때목을떠워내릴준비를할적에는 때목우에서삿대를 손에공손히들고서 단정히

서서 마음으로기도를하고 떠난다 산골내물은 급류이여서 웃 「골명」에서떠난 때목은 아랫「골명」에까지도달하기전에는도중에 내바닥 좌우편으로 중간중간에 나무말뚝을 세우고위은 통나무를 가로질처서 이때목이 몰길에따라 구비치는곳― 소위 「커브」에 부디치도록 하여두엇다 몰구비를 따라 급류도로 떠나려가는 때목이 이 「커브」에부디치면 그부딧치는 힘을바다서다시 아래쪽으로 활살가티내려가게되는것이다 때목을떠워내려가는데는물끗그 떠내려가는 방향을잡게하는 키가잇다 배의키는 뒤에 부러잇지만는 이때목의 키는맨 아페 부러잇다 한때목을 벌부한사람이 떠워가게된다 이것을 중발섭에서 최후의 도착점까지 한사람이 줄곳라고가

사히 통과하여지기를 천지신명에 기도하는것이다 이때목을떠워내리는 이가림천(佳林川)에는 계되는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서 중계하야 즉 「릴레이」식으로바꾸어 라고 내려가는것이다 그중계하는 거리는 그다지 멀지안흔 곳이어서 하로에 세차례 혹은 네차례씩왕복하게된다

△―△

벌부들은 이때목을 다옹중계소(中繼所)까지 타고내려 가는 동안은 때목우에서 꼿꼿이서서 가게된다 그런데 산골물은 아무리더운 여름철이라도 어름보다도 더차다 이찬물이때목우으로출렁출렁씻처 내려가게되므로 물에잠기는 벌부들의 발목은「지까다비」는 신엇슬 망정 얼어빠질지경이나 늘라면이 되엿기때문에 그것을 예사로 참게된다 만약 우리가튼면 그차디찬물에 단오분동안이라도 발이나손을 너코서 견딜수업는형편이다 꼭참고견딘다면 나종에는 마비가되여서 감각을 일허버리게될형편이다 벌부들이 어차디찬물에 발을 잠그는것쯤은 그들로서는 그다지 대단한고통

으로 여기지안는다 그들의 가장 무서워하는것은 루한가지가 잇다 쿠라고가던때목이 중도에서 부서지는일이다 흘러내려나부로 다닥비엇근것이지마는 급류에 나려가다가 물속에비치어서 떠가든가지는 수가 가끔잇다 또는노흔「골명」에서 나란히으로 쏘다저 내려갈적에 비어든근수도잇엇에 거꾸로 박히어버리는수도잇다 때목이 부서지는때나 물속에 거꾸로 내려바칠적에 벌부의 몸이가 때목미트로 드러가거나 혹은 버러진 때목파때

목사이에 끼이어서 다리가 부러지거나해서목숨을일케되는수도잇다

△―△

비록 다행히 몸은 상하지안헛더라도 부서진 때목은 산산히 급격히 흘러가는 수세를 따라서 하류로 흘러가버린다 그것을 중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붓잡아 주다면 그들에게는 상당한 보수를 주어야 하겟고 영영 일허버리면 그 책임벌부는 영림서에 대하야 배상하여야된다 한때목만 일허버리면 석달가량 버러야만 겨우 그것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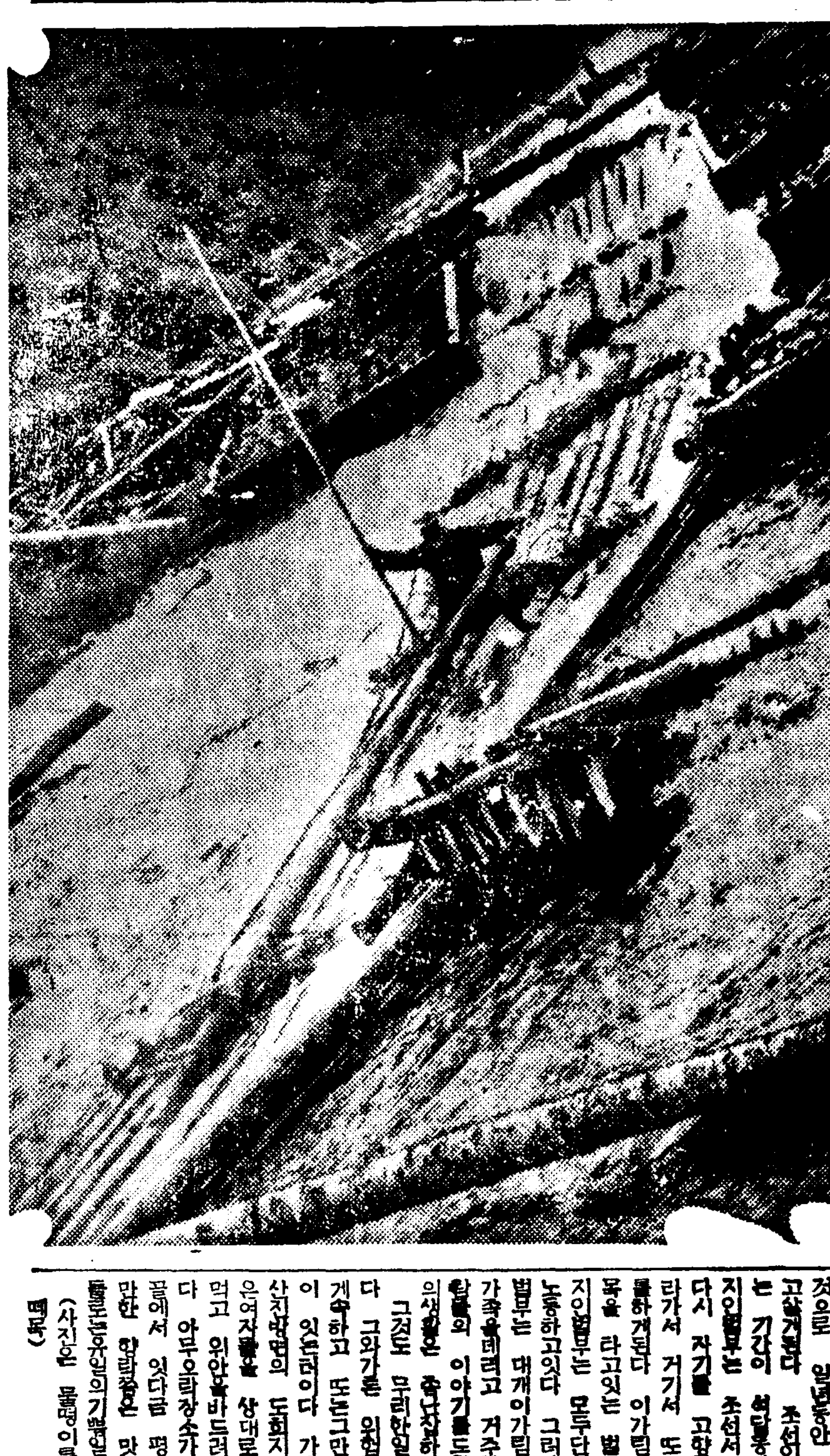
상할수잇는 형편이다 이때문에 벌부들의 가장 두려워 하는것은 때목이 부서지는 일이다 벌부의 종류는 여러사치영림서관내에서는 갑, 을, 병(甲乙丙)의 세종류가 잇다 갑종은 내지화가산현(和歌山縣)에서 데려온내지인벌부이요 을종은 조선안에서 뭇지한 내지인벌부이며 병종이 조선인벌부이다 혜산진영림서 관내의 벌부수효는 모두 이백육십육명인데 갑종은 십구명 을종은 다섯명 병종은 이백사십명이다 이갑종벌부는

화가산현 일고천(日高川)에서떼목을떠우던 숙련벌부이다 일고천의 수세도매우 급류이다 그수세와 이가림천의 수세와흡사하므로 이로부터 약이십년전에 영림서에서 이화가산의 벌부를 데려와온것이다 그리하야 그들이 조선안에서 조선사람에게도 때목타는 방법을 지도하엿다 멧해전까지는 급류에는 갑종벌부 또 그 아래쪽에는 을종벌부 또아래쪽 압록강본류의 완류(緩流)에는병종벌부를 배치하야 때목을타게하엿스나요지음에는 병종벌부도

어느듯이 가림천에서도 급류에 때목을 타고잇다 조선인벌부의 기술이 점점 향상되여감에 따라 내지인갑종벌부의 맛질수효도 해마다 차차주려가고잇다한다 벌부들의 하로수입은 조선사람은벌부는사람에오십전내지 오원가량이며 내지인벌부측 갑종벌부는 하로에 평균삼원가량이다 매우 위험한 노동인 대신에 그수입은 비교적다른 노동자와 수입과는엇지나은편이다

△―△

그러나 이들의버리하는 기간은 오월로부터 칠월초까지 약석달동안이다 이석달동안에 번것으로 일년동안 가족을파먹고살게된다 조선인벌부는 버는 기간이 석달동안뿐이나 내지인벌부는 조선서 일이끗나면 다시 자기들 고향화가산으로도 라가서 거기서 또때목라는버리를하게된다 이가림천유역에서때목을 라고잇는 벌부중에서 내지인벌부는 모두단신으로 와서 노동하고잇다 그러나 조선사람벌부는 대개이가림천 연안에서 가족을데려고 거주하다 이곳사람들의 이야기를드르면 벌부들의생활은 죽나지안다고한다 그것도 무리한일은 아닌것이다 그와가튼 위험한일을 매일 계속하고 또는그만한 만흔수입이 잇는터이다 가끔가다가 혜산진방면의 도회지에 나가서젊은여자들을 상대로 술잔씩이나 먹고 위안을바드려하게되는것이다 아무오락장소가 업는 이산골에서 잇다금 평지로나가 그만한 향락쯤은 맛보는것이 그들로는유일의기쁨인것이다(게속)



(사진은 물명이를 빠저나오는 때목)

四千餘工場休業續出과 卅萬從業員의焦燥相

失業·轉業의積極救濟를要望

평和產業의危機와 그뒤에오는것들!

전시의 장기화는 마침내 정신총동원뿐만아니라 물자총동원까지를 요구하게되엇고 군수공업에의 급격한수요으로 평화산업은 드디어 위축을 면하지못하기에이르럿다.

이것은 전시에 잇서서는 당연히 바더야할 곤고(困苦)요 또 희생이라할것이로되 한편으로는 또 종업원생활의 안정을 보장한다는것도 무시할수업는 중대문제이어서 사회의고민는 그대로 당국자의 시급한대책과 선처를 갈망하게된다.

조선은 더욱 내지와도 달라서 산업계라고한대야 겨우 초창기(初創期)를 버서나서 이제부터 바야흐로 발전되려든 때이라 돌연한억제는 마침내 서리맛난 풀닙가튼 처지이다.

그수효로서는 불과 사천여공장에 지나지못하야 내지산업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그러대로 이것이 아프로 산업조선을 호화롭게할 뿌리요 싹인지라 그수효의적은것, 규모의작은것만으로 여간한희생을 쉬사리 무시할수업는 형편에잇다.

그러데 그것보다도 더큰문제는 이 취업해잇든 노동자들의 공장의 휴업 또는 작업시간단축으로 인한실업과 실업상태에 빠진문제이다.

이들 노동자는 대개 삼십여만명으로 헤이고 그가족까지 아울러서 백만명의 처지인데 가령 공장주측의 희생은 그것이 이해문제에 불과 하다하더라도 이들의희생은 그것이 곳 생활문제에 부드치는것이어서 더한층 심각한바라안흘수업다.

종후의 생활이 불안하면 국민정신의 사기진작에도 큰영향이잇는것이므로 당국으로서도 그들의 실업구제, 전업알선(轉業斡旋)에 노력하고 잇는것이며 아프로 더욱 이문제의 구체적대책이 나타나기를갈망하고잇다.

中央情報委員會

來22日總督府서開催

今後活動方針과計畫을協議

작년칠월 지나사변이발발된후 총독부에서 조직한 중앙정보위원회(中央情報委員會)는 조직후 만일주년인 오는이십이일 오전 구시부터 총독부제이회의실에서 위원장 대야정무총감(大野政務總監)이 출장하고 업는까닭에대 죽내무국장(大竹內務局長)대리로 기념총회를개회하고 과거만일개년동안의활동상황에대한 보고가 잇슨후 금후 제반계획과방침수립에대하야 나상현의 결정할터인데 시국은 마침내장기전에 드러갓스므로 금후 활동할 방침과계획은 자못중대하고도 긴밀한내용의것으로 그기관의 성질을일층강화시킬터이라한다

北寧鐵道各驛行 車票發賣를開始

북지방면의 치안이

유지됨에따라 그방면의 여행객이 날마다 만허가므로 「째팬·투리스트·뷰로」에서는 요지음에북녕(北寧)철로각역에 도착하는차표를 팔기시작하엿다 경성서 북경(北京)에 갈라면 경성 봉천(奉天)사이와 봉천 북경사이에 차표두장을동시에사면봉천에가서 다시 차표를사게되는 번폐가업게된다한다 그리고 연대차표(한장)를 발매하기위하여서도 방금 조선철도국과 각관계철도당국자와의사이에 의론하고잇는중이라 한다 경성으로부터 북지각중요역까지의 차삯은 다음과갓다한다

▲진황도(秦皇島)에 일등오십육원오전 이등삼십사원구십삼전 삼등이십구원팔십구전
▲개평(開平)에 일등육십오원칠십오전 이등삼십칠원칠십삼전 삼등이십이원오십구전
▲로대(蘆臺)에 일등육십오원십오전 이등사십사원삼십삼전 삼등이십이원오십구전
▲당고(塘沽)에 일등육십오원구십오전 이등사십원오십삼전 삼등이십사원팔십구전
▲천진총참(天津總站)에 일등육십칠원구십전 이등사십이원팔십삼전 삼등이십오원칠십사전
▲랑방(郎坊)에 일등칠십원구십전 이등사십사원팔십사전 삼등이십사원팔십삼전
▲정양문(正陽門)에 일등칠십삼원이십전 이등사십칠원삼십전 삼등이십오원구십사전이다

烈暑襲來! 昨日最高32度4

오랫동안 계속하던 장마 폭우를 뽐내지안허 거리의 가 평북지방의 수해를자아 사람들을 맘속에서 허덕여 내기는하엿스되 조선의 곡 기는하나 이번출발고 모가 창(穀倉)인 남조선에는다행 무럭무럭 자라날것을 생각 으로 수해에 미치지안흐체 하면 이더위가 또한 시원 날이뜰게되여 농민들으로는 한더우이다! 어심에는더 일반의 조바심이 저윽히풀 한층 더위가심하야, 정오는 텃다 작금 쩽쩽나려쪼이는 도가 삼십도、오후두시까지의 한여름 뙤약볏치 여간 그 최고온도가 삼십이도사에뛰

여울라가다 화씨(華氏)로 치 면구십도삼분이 나렷스니부 변히더운날세다! 작년최고 가 삼십사도오분이엇스니까 언되엿스니 금년이때 더위 가평년보다 삼사도나더하여 잇다 한참동안장마비가내려 서 모두들 먹엇스니 이제이도쯤 더올라가면더위 의절정에 올라서게 되는셈 어다 작년이날의 최고온도 가이십구도 육이엇고 평년 을보면 이십팔도 팔밖에 제부터는 장중에안진선도로 한층안 날이들어 더위가는 것이 농사를 주장삼는 어 떠의 누구나 다한케가지는 바람이다

市民의발에重壓深刻!

빠스路線또大整理

깨솔린節約徹底코저

運轉回數減縮·木炭車도使用

전시체제아래에서 종후국민의 생활이 의식주각방면에서 간소화(簡素化)가 요구되고 잇는때 민간에서 쓰이는 까솔린은 극도로절약하야 군용에 보충이업도록하는 까솔린소비절약의 국책에서생긴 전표제도는 지금다시 칠십만 『부민의발』에 큰제한을 주고잇다 종전 소비량의 약 어할정도의 절약을목표로 지난 하롯달부터 조선에도실시된 전표제도에의하야 사용량을 주리지안흐면 안되게된 경성전기회사 빠스계(係)에서는 위선 응급대책으로 그리 중요하지안흔 노선의 운전횟수 또는제한을 단행하엿다 즉 용산역선(龍山驛線)과 홍제원선(弘濟院線)의 휴지 서계정선(西界町線)의 운전시간 제한을 하얏스나 날이차차갈수록 당국에서 허가바든 까솔린량이 점점적어질경향이라 다시 제이단의책으로 일반노선의 운전대수와 운전회수감소 노선의재정리 목탄빠스사용등을단행하는 고려중으로 시민측에는 이것이모두 발의중압(重壓)으로 나타나고잇다

즉 시내에는 약구십오대의 차대를가지고 운전하야왓스나 까솔린절약의 필요상 종래배치하든 예비차(豫備車)를 단연폐지하엿스며 아침, 저녁의 "러쉬·아워"시간외에는 운전회수를 상당히주렷기때문에 그러치안어도 찌는듯한 요사이"빠스"마다 초만원의성황을이루는때는 시민의 불편불만이 여간크지안타

경전당국에서는 이대책으로 다시 노선의재정리와 목탄차의사용을 하기로되엿스니 불원에 삼각지(三角地)이태원(梨泰院)사이의 이태원선과 영등포역 김포가두 당산정(唐山町)사이의 당산정선의 운전을휴지하며 아울러 지금 대화정선(大和町線)에 한대바게업는 목탄빠스를 대량구입하기로 되엿다고한다 이와가튼"발의중압"은 아프로 민간에서의는 까솔린량이 지금이상으로 제한될것이예상됨에따라 점점더하야 갈것으로 전시체제의 강화는 총후국민의"발"에도상당한 인고단련(忍苦鍛鍊)을 요구할것을 각오하고 이때일반시민은 거둔을 불평업시 책임의식이 도움이되도록하는것이 조금이라도 하다

生徒五十名引致

善隣商業學校放火容疑者로

檢事도出動·龍山署에서嚴調中

십구일저녁 여덜시삼십분경되여 부내원정(元町)일정목 선린상업학교(善隣商業)제이학년B조교실에서 불비치보이는것을 수직하던교원이 발견하고 엄대소동이되여 불은다행히곳꺼젓다 그런데 용산서에서는 현장검증을한결과 그때교실에는 아무도 업엇는데 불구하고 깨여진매주변세개와 부근에서는 휘발유냄새가나는점이 수상하야 이십일아침사건을 경성지방법원검사국에보고, 이등검사(伊藤檢事)가출동하야현장을재검증한결과 방화로결정하엿다 소관용산서에서는동교교사지휘아래활동을시작하야이날까지에동교생도(중학소불량생들)오십명가량 성적이 아주나쁜자 최근선생에게 꾸지람을드른 생도등 오십여명을 동교에불러내여 엄중한조사를하고 잇는중으로 무서운범죄의범인이생도중에숨어잇는지사건의귀추는이학교의부형에게큰주목꺼리가되고잇다

慰藉料五千圓

사랑하는내딸이 치여죽엇스니내오

이십일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는 수원군수원읍신풍정(水原郡水原邑新豊町)백남관(白南寬)이가 수원자동차회사(水原自動車會社)를 상대로한 오천원의위자료청구사건의 소장이 드러왓다 소장의 내용은 지난칠월이십육일 원고의딸 봉기(鳳基)(○)가 피고회사 자동차운전수 소외(訴外) 이○○에게 치여 죽엇는데 피고회사의 책임이 잇다는것인바 피고회사에서는 자기회사에는 조금도 책임이 업다고 불손한 말을하므로 원고는 정신상 타격이심하야 오천원의위자료를 청구한것이라한다

思想轉向者聯盟

全朝鮮서數百名參集

24日府民館서結成式

사변을기회로 현연히 지난날의 사상을청산하고 애국운동에 참가하려는 전조선사상전향자들의 조직체인 시국대응전선사상전향자연맹은 기보한바와가티 이십사일오전아홉시 서내 부민관에서 성대히 거행하게되엿다 여기참석할 전조선대표와 시내각개인동지 수백명이 모힐예정이고 삼교(三橋)경무국장 염원(鹽原)학무국장 중촌(中村)보호국장이 참석할터이며 혹은 남총독(南總督)도 시간형편을보아서 참석할는지모른다

총딱

명랑한일에도 경찰서라면 가기실혀하는것이 경민일체(警民一體)의이세상에 안될일이라

○ 그래서 어제부터 경찰안내소가생겻다니와 가서보니 칼안찬 경관의 상냥한말이란!

○ 그리고보니 경관이란 이러케 민중의벗이엇건만 어쩌서 경원(敬遠)주의가생겻던고?

○ 휴여메친 사변의 위엄이 지나치지이 아니엇드냐고

○ 민중의벗되랴는 안내소만은 부족! 모롯지어 보서에까지

○ 주식(株式)에 실패한 청년, 청산가리를 마시다

○ 주식이죽엿나? 욕심이 죽엿지!

曆

▲七月二十一日(木曜)陰六月二十四日 ▲干支 甲寅 ▲日出午前五時二十八分 ▲日南中午後零時四十分 ▲日入午後七時五十一分 ▲滿潮(仁川)午前十時二十四分 ▲午後十一時二十五分 ▲月出―― ▲月入午後一時四十分

스포ー츠

東洋拳鬪會 拳鬪豫選 廿三日、本社講堂

全日本아마튜어 拳鬪界의 一流名選手로 組成된 東京留學生拳鬪軍이 今夏 鄕土에 來訪코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一行中의 選手와 마네저 沈明燮、朴○○等은 이미 入京하야 아마튜어拳鬪聯盟과 折衝中인바 朝鮮拳鬪俱樂部와의 對戰은 八月五日에 擧行하고 東洋拳鬪會와의 第二回戰은 八月十二日頃에 擧行할豫定이라한다 이에 東洋拳鬪會에서는 留學生軍과 對時할最强陣을 選拔코저 豫選大會를 來廿三日午後七時에 太平通朝鮮日報講堂에서 擧行할터이라는바 이날은 同會所屬選手 韓龍河、朴順喆、梁政模 鄭福童外諸强豪가 出場하기로되여 벌써부터人氣는노파저잇다

今日竹添町코ー트 留學生庭球戰

東京留學生으로 組織된 白友庭球俱樂部와 全京城學生選拔軍의庭球對抗戰은 今二十一日午後四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行할豫定이엇든바 場所를 變更하야 竹添町殖銀코ー트에서 同時刻에 行하기로되엿다한다

全日本籠球軍을 比島에서招聘

比律賓 體協主事 이라난博士로부터 日本籠協理事 李想白氏에게보낸 書信에 依하면 全日本籠球選拔軍 選手十名 코ー치一名을 十二月中旬에 比律賓에招聘하야 三週日間豫定으로 十試合을 行할豫定이라는데 이計劃이 實現되면 朝鮮出身 籠球選手들이 처음으로 比律賓에 遠征할터이라한다

東京大相撲大場所 京城千秋樂勝負

安藝海(下手投)名寄岩
兩國(寄切)磐石
男女川(吊出)鯱岩
雙葉山(外掛)前田山
(打出五時四十五分)

朝鮮神競水上豫選 八月六、七兩日開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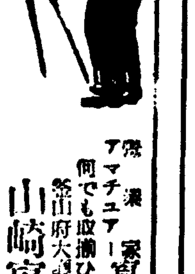
京畿道體育協會主催의 朝鮮神宮體育大會 水上京畿道豫選兼、日本水上選手權朝鮮豫選兼、朝鮮對滿對抗水上朝鮮豫選會는 來八月六、七 兩日間 京城運動場풀에서 擧行할터인데 參加規定은 다음과갓다한다

▲資格=男子로써「아마튜어」될것
▲種目=(自由形)百米 二百米 四百米 千五百米(平泳)百米 二百米(背泳)五十米 百米(繼泳)二百米 八百米 三百米메드레ー
▲制限=一人二種目(繼泳을除外함)
▲備考=決勝戰出場者는 朝鮮神宮奉贊體育大會 水上競技大會의同種目에 出場할資格을
▲水球=試合方法은勝拔式으로함 一團體申込十一人까지임
▲飛込=高飛込、板飛込
▲申込期日=七月卅一日까지
▲申込場所=龍山公立中學校 原佐市氏에게로 封書로使用하야申込할것

昨年度の佛蘭西映畫界で名聲『どん底』とデュヴィヴィエと賞を爭つた有名な傑作！
若き俊才 マルセル・カルネ第一回作品
佛・A・E・FG・映畫
東和商事提供
ジェニイの家 JENNY
フランソワーズ・ロゼエ　シャルル・ヴァネル　アルベール・プレジャン　ロベール・ル・ヴィガン　マルゴ・リオン
これは大都會の一角に頽廢と情熱と愛慾としかも美しいまごころに生きてゐるあらゆる人間の圖だ！
七月二十一日封切
東日大每 朝日 國際ニュース 世界ニュース
東寶映畫大作
愛情一路
岡讓二・立花ぼる主演
三木利夫・宮野照子・柳田貞一・柳谷寬・清川玉枝・清水美佐子
文壇籠兒片岡鐵兵の原作によるも新たなる都會の斷層！
逞しき男の愛と可憐な乙女の純情とが私夏の宵に描きだす大都會の風俗詩！
均一五〇錢
若劇

品質第一 フルーツ 桃屋의果實罐詰

白桃、黃桃 枇杷、西洋梨 후루ー쓰사라다 후루ー쓰폰치 蜜柑
櫻桃 鳳梨
各데파ー트食料品店에잇合
東京 桃屋發賣


アマチュアー 寫眞機、材料 何でも取揃ひます
釜山府大廳町一丁目
山崎寫眞機店
電話二一七五番
中古品寫眞機レンズ交換賣買

嬉しいお知らせ
洋裁手藝면뭣이든지알게되는「洋裁講習錄」見本과
月刊 洋裁之硏究 一個月分無代進呈
東京高等技藝學校

윤고약
手術안코도惡性腫毒과 骨髓에거피든어렵고、오래된瘡毒을잘낫게함

우수한치림약
리베ー루
염려말고、의심말고 꼭한번시용하시오
五日分 貳円五十錢
大阪市東區南久太郎町 竹村製劑所
各藥店에잇合

チューインガム ㊀
ムエイア
アマ黨も！
カラ黨も!!
飲み黨も！
喫煙黨も!!
凡ての紳士よ！
淑女よ！
御身の爲にか！
彼女の爲にか！
アイエム チウインガムに 依つて齒の清掃をなし明朗な入生になれ
京城府總輸一 發賣元 京城公司 製造元 マルイー製菓場

Maruima kokusan gamu

中部版

仁川穀協定總 役員全部改選

【仁川】 인천곡물협회(仁川穀物協會)에서는 지난십팔일 오후두시 그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코 소화십삼년도 하반기예산 기타사항을 보고하야 원안대로 가결하고 다음과가티 역원의 개선이 잇섯다 會長 加藤平太郎 副會長 [illegible] 理事 [illegible] 野邊榮 [illegible] 今井榮三 [illegible] 杉野榮八 [illegible] 岡村榮七 [illegible]

京城府의水道擴張 第四期計畫案成立

八百五十萬圓으로明年부터五個年繼續

防空見地에서五十餘우물掘鑿

경성부수도과에서는 지난소화 십일년도부터 사개년계획으로 공비이백팔십만원을 던저 경성수도제삼기확장공사(京城水道第三期擴張工事)에 착수하야 이래 그공사의 진척에 노력하여오던중 작년지금 뜻밧게 지나사변이 돌발하야 물자특히 철관의 폭등 품귀(品貴)로 말미아마 도저히 최초의 예정대로는 공사를 완성하지못하야 신편입구역의 부민들은 이수도급수의 혜택을입기는 아직요원한 느낌을 면할수 업는 상태이나마 하여튼 이상수공사는 미진하게나마 우선끝장을마치고 이에계속하야 제사기확장계획을 예의 고구중이던바 요즈음 그구체안이 성안을 보게되엿다 이사기계획은 총경비 팔백오십만원으로써 오개년계속사업으로 되어잇는데 특히배수지(配水池)를 다수히 산재하는등 방공적의미를 충분히 가미하여잇스며 이계획이 완성되는때에는 해마다 급수난내지 단수소동까지 이르키는 신편입구역에도 완전히 급수될터이라고한다 그리고이와병행하야 우선시급한 응급처치로써 또는수도가 파괴되는때를 가상한 방공적견지에서 작년이래 부내에 사십오개소의 우물을 개착하는 [illegible] 명년도에도 부내 [illegible] 우물을 개착할 계획이라는데 [illegible] 예산은 약이만원을 계상할터이라고한다

月尾島의天幕村

西海岸松林中에開設

인천(仁川)에잇는 월미도유원주식회사(月尾島遊園株式會社)에서는 금년에도 예년과가치 칠월이십일부터 서해안 송림중에 천막촌(天幕村)을 설치하고 사용희망자에게 제공하겟다는데 사용규약상세는 다음과갓다

一、가족지대(家族地帶)와일반지대(一般地帶)에구별이잇슴

二、부인과부인을다린분은가족지대에한함

三、한구역을오평내지칠평으로하고사용료는 다음과갓다

一區劃에 十五日以內 二圓七十錢

同 三十日以內 三圓八十錢

同 五十日以內 五圓五十錢

四、사용하는이는 규약을엄수하여야할것

이번엔電線賊 被害額千餘圓

【仁川】 전기 철도를 기화로 전선을 절취한 [illegible] 경성전기주식회사(京城電氣株式會社) 인천지점에서 [illegible] 전선을 [illegible] 피해액은 천여원에 달한다는데 인천서에서는 엄중히 수사중이다

地方人事

◀李光熙氏(竹山小學校訓導)赴任 人事次本社竹山支局來訪

戰時의納稅好績

國稅總額三百七十萬圓

―比前年百十萬圓의增加―

【仁川】 사변하에 일년을지나고 인천부민으로서 바친세금은 얼마나 되나? 인천세무서(仁川稅務署)관내의 조사에의하면 상반기까지 증수된 세금이 삼백칠십만원으로 전년도의 이백육십만이천원에 비하야 백십만원의 증수(增收)를 보엿다 그원인은 주조세금 백삼십팔만의천원이외에 석량(錫?)등 영업세 [illegible] 지의 물품세를 [illegible] 그성적이 양호하다 이에세금으로나타난 전시상공업계의 약진상을 여실히 말하고잇다

小學生作品을 北支兒童에게

경성부내소학교 교원회에서는 일지친선(日支親善)에 도움이되도록 소학생들의 작품오백점을 거두어 지나소학생들에게 선사하엿다 북경신문사(北京新聞社)에서는 이작품으로 지난오일부터 사흘동안 전람회를열어 일반에게관람케하고 폐회한후 각소학교에 참고재료로배부하엿다

教員에도削髮令

開豐郡에서率先實行決定

【開城】 비상시에처한 교원으로서는 먼저기분부터 긴장시킬필요가잇다고 이번개풍군(開豐郡)시학(視學) 신천(新川)씨는 자신이 먼저소중이 여기든 머리를 깍고 관내각심상소학교원에게 이뜻을 전달하엿든바 이십일부터 시작되는 하기방학까지 교원전부 삭발을하기로 결의되여 학창에도 비상시의 긴장한 풍경을 나타내게되엿다

始興勤勞報國團

廿一日부터各面에就業

【永登浦】 시흥군(始興郡)에서는 십구일오전십시부터 군회의실에서 군내각면장과 토목산업(土木産業)주임을 소집하고 조선도로령(朝鮮道路令)의 세행규칙(細行規則)을 중심으로 종종 협의하얏다는바 양자의조직된 근로보국단(勤勞報國團)의 제일회 노동작업예정으로 이십일일부터 군내각면별로 실정(實情)에비치어 면내의도로, 교량등 감독공사에 부역하기로결정하얏다

天安라디오體操

【天安】 운동은 건강의원천(源泉)이오 건강은 인생의행복이다 ―이런의미에서 천안군체육회(天安郡體育會)에서는 여기에 느긴바잇서 [illegible] 하기운동을 [illegible]

事務統一을爲해 總動員課를新設

京城府의時局對應策

경성부는 열지사변 발발이래 정부와 총독부의 방침에따라 국민정신의함양 비상시경제에대처하는 제반시설과 군사후원등에 만전을 기하여오는바 시국이점점 장기에빠처서 소위 장기항전의 체제를정돈하야 제반사항의 철저를기할필요가잇스므로우선 그대책구체화의 한수단으로써 총독부에서는 [illegible] 처리하는 [illegible] 사항을 [illegible] 경성부에서도 시국 총동원과(時局總動員課)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이파에는 정원과장이하 직공등 [illegible] 전기장치실에서 작업중 [illegible]

製氷工場職工 高壓線에重傷

【仁川】 고양선(高壓線)으로 직공 [illegible] 신정(新町) 목도(牧島)병원에 입원치료중 [illegible]

廢鐵類를蒐集

老人들어獻金

【京畿】 부내이래원정 중부정회(?) 경로회(敬老會)에서는 지난십삼일부터 회장 이홍길(李興吉)씨외 칠십삼명이 의회원들이 총동원하야 집집이 폐철물을 거두어모아 파러서 그대금을 국방헌금에 보내달라고 본사를통하야 국방헌금에 보내달나 하얏슴으로 본지국에서는 이를 [illegible]

蘇萊에郵便所要望

【蘇萊】 부천군소래면(富川郡蘇萊面)은 경인간중심지이며 인수 [illegible] 인구일만여를 포용한 발전도시이다 제반시설의 필요한중에 한두가지가 아니나 제일민중에 요망하는바는 우편소의 설치이다 이면에서는 [illegible] 면소를 이용하므로 우편물이 지연됨으로 [illegible] 우편소설치를 요망한다는데 [illegible] 다하며 당국에서 재삼고려하야 주기를 바란다고한다

犯罪에도非常色

鐵管類만專門竊取

犯人은仁川署에서取調中

【仁川】 현주를 인천부 류정(柳町) [illegible] 주소부정 홍○○(洪○○)은 작년팔월에 인천으로와서 경기도립 인천의원(道立仁川醫院)을 부내화정(花町)에다신축중에 나와수도(水道)장치공사를 지휘하야 [illegible] 조선이가마른 수도철관이 예산한후 수십배를 들어서 그병원에서 세밀히 조사한결과 전기 홍○○이가 공사중에 수차에 공하야 수도철관을 절취하야 팔아먹은것이 판명되여 인천서에 유치시켜 취조한결과 전기사실을 자백하엿스므로 여죄가 만흔모양으로 취조중이다

牙山에螟虫發生

【牙山】 중앙선방에는 [illegible] 도열병(稻熱病)으로 농민들이 걱정하는 [illegible] 되여 전군농회에서는 그중 [illegible] 면부근이 심하므로 [illegible]

母女의共謀로 有夫女를誘拐

【開城】 본적을 부내궁정(宮町) [illegible] 경부내남본정(南本町)이백이십이번지 정금옥(鄭金玉)(三)이란부녀와 알게되어 [illegible] 에두고 일정한주소가업시 [illegible] 김금옥(金今玉)(二)을 [illegible]

總動員細胞團體로 各面에支部設置

始興郡下八面에서

【永登浦】 저번에 결성을보게된 국민정신총동원련맹시흥지부(國民精神總動員聯盟始興支部)는 다시그세포단체인 각면별지부를설치하야 련맹설치의 취지를더한층철저히 하고저 다음과가튼일할(日割)로 각면에서 일제히발회식을 거행하기로되엿다

東面八月五日午前九時 西面八月六日午前十時 新東面八月八日午前十時 果川面八月十日午前十時 西二面八月十日午後一時 南面八月九日午前九時 秀岩面八月十一日正午 君子面八月十二日正午

清凉學院에 五十圓寄付

부내 청량리(淸凉里)에잇는무산아동교육기관인 청량학원(淸凉學院)은 이번교실을 확장하기위해서 사무실을따로지엇는데 그비용은 동리학부형들이 맡써자진거출한것이 일백사십원이엇다 그러나주(?)비는 이백사십원이나드럿기때문에 부족한돈으로 곤란하든중 동리 박거원(朴巨源)씨는 또다시 오십원을 보태주엇다고한다

松島遊園地에 警官派出所新設

【仁川】 인천경찰서에서는 송도(松島)유원지가 개설된이래 지방인사와 인천부민이 과서지로서 유입하는송도유원지로 배입수 [illegible]

"民家十戶로愛國班"

精神動員中央地方의組織大綱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련맹에서는 국민적운동의 철저적 흥재강화를 기하기위하야 연맹조직기구의 유기적 결합을목표로 대개 다음과가튼 조직체로써구성하야 중앙, 지방을 통하야전조선 전비적으로조직케한후 그기저(基底)로써 각정, 동, 리부락에 약십호씩으로써 애국반(愛國班)을 결성하기로되엿다

◀朝鮮聯盟 道聯盟及 全鮮을區域으로하는 團體로써構成

◀道聯盟 府郡島聯盟及 道를區域으로하는 團體로써 構成

◀府邑面聯盟 一、府聯盟 町洞聯盟及 府面區域으로하는 團體及其他府內의 各種聯盟과 個人으로써構成 二、郡島聯盟 邑面聯盟及 郡島를區域으로하는 團體로써構成 三、邑面聯盟 洞里部落聯盟及 邑面內各種團體其他各種聯盟과個人으로써構成

◀町洞里部落聯盟 一、町洞里, 部落을 區域으로하는 各團體內의 個人으로써構成 二、府邑面內에 잇는 官公署, 學校, 會社, 銀行, 工場, 大商店等 日常多數人을 收容하는 곳에는 愛國班을組織

◀愛國班 町洞里 部落聯盟에잇서서 大概十戶로써 愛國班을 組織하고 同班은 隣保協力하야 聯盟의 目的에 副하야 任務를 가지며 同班은 其他日常多數人을 收容하는 事務所等에는 實情에 應하야 聯盟又는 愛國班을組織

시국에잇서서 조선내의 각지방 파내지의 동경 대판 신호와만주국의 각지방과 멀리하와이 상항 독일규바에잇는 심각한시국인식과 진충보국의 철저한실행을다하기위하야 국민정신총동원의 예리삼만매를 인쇄배부하엿다는데 그실행요항은 다음과갓다

一、매일아침 가정에서 동방요배하야 황거요배(皇居遙拜)할것 二、매일정오의 [illegible] 정오시간에 묵념할것 三、[illegible] 국위선양(國威宣揚)의 [illegible] 기원할것 [illegible] 이 [illegible] 표어를 회원의 기관(郡面里)마다 옥외 혹은 [illegible]

日常食에肉餐은廢止

서냥은 쓰지말것

天道教中央宗理院에서實行

이번에 천도교중앙종리원에서는 국민정신총동원의 취지에 비추어 비상시를 [illegible]

三菱ミシン
반드시 당신의맘에들 미싱이 三菱입니다
三菱ミシン陳列場 京城府鐘路二丁目永...ビル 電話光化門(3)1437
市內各百貨店에잇습
足踏式 ¥160 手廻式 ¥140
ミシン針 1打 ¥0.70
型録進呈
三菱電機株式會社 三菱商事株式會社

君不見山東胡白菜乎아 出賣大信通
農家에菜農은 적어도 一年間半農이니 菜種은 優量通野市나 行商의게서 絕對購入은 危險!!
仔細한說明書는 請求하시는대로 進呈
純支那 是乃四貫種 包頭連 胡白菜種
勿驚! 本園五大胡白菜種은 一株 二十餘斤! 本園菜種을 심으면 今年秋白菜는 豐作期必코大成功
包頭連白菜種 一封二十錢 一合七十錢 五合三圓 三十錢 一升六圓五十錢
芝罘白菜種 一封二十錢 一合六十錢 五合二圓八十錢 一升五圓五十錢
直隸白菜種 一封二十錢 一合六十錢 五合二圓八十錢 一升五圓五十錢
山東白菜種 一封二十錢 一合六十錢 五合二圓八十錢 一升五圓五十錢
中國靑長大根 一封二十錢 一合七十錢 五合三圓三十錢 一升六圓五十錢
金百圓 進呈也 비록一封一合의 菜種이라도 本農園에서 買入한것이 播種後 非本園의 結球이면 一金百圓也의 賠償金을 드리기로 誓約
注文方法 迅速酬應
菜種은 古來習慣上 先金去來이며 또 한先金이라야 送料를 本園에서 負擔 但代金引換注文에는 數量五合以上, 先金三分一以上이 아니면 不能 注文은 先金으로振替京城二二三八二番으로 보내는것이 安全 十二時間以內發送 日以內 到着, 아무리 山間僻地라도 五日以內 能到着
(不適菜農時하고 必需嗜好種이 면菜不可勝食이며 亦有商利)
安東縣舊市街鴨江春後 山東農園 電話分局八〇二番 振替京城二二三八二番

驅虫은 一日이速하면 一日이便해
虫退治 マクニン 마구닌
M 1349
먹기쉽고·잘듯고·해가업다
一錠一日量 大人十錠
錠劑 .20 .50 1.00 2.00 / .30 .75 1.35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京城府西小門町

世界唯一 小型純冷始動
ヤンマーディーゼル
農工業移動用 大量製産 在庫豊富 カタログ贈呈
馬力 1.5 2 3 3.5 / 馬力 4 4.5 5
据付小動力用
馬力 5—6 7—8 / 馬力 10—12 15—17
本機特長 一、燃料費極メテ僅少 二、純冷始動ニシテ取扱容易 三、回轉円滑 四、作業能率倍加 五、輕量ニシテ移動容易 六、サービス万全
甲位入選 入選機 5型四馬力、Ⅱ型五—六馬力 於農林省小型デーゼル比較審査 昭和十三年二月二十四日發表
京城府京城驛前 株式會社 山岡發動機 京城支店 電話本局一〇〇三番 本社・大阪市北區茶屋町

武田發賣品
わきがと汗止に 암내와 땀방지에
爽快한크림 ダモラ 다모라
암내나는분에……ダモラ를손끗해찍어서가볍게문지르면 조고마한刺戟도없이不快한냄새를업샙니다
땀흘리는분에……手, 足, 허리등 가닥끈部分에 찍어바르시면 오래동안언제나 爽快한氣分입니다
【定價】小(六五錢) 大(一圓二〇)
各藥店에잇슴
發賣元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關東代理店 株式會社 小西新兵衛商店 東京市日本橋

こんな簡單さで 斑らな日やけが防げる!
健
康한얼빛의 벗꺼름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손질을그르치면 斑點이 된 벗꺼름이되고 살이 거치러진다면 몸맵시도 엉망이됩니다。
말끔하고 爽快하게살에녹아드는 純良하고經濟的인 マスターバニシング를 쓰시면 餘分의脂肪을 吸收하기때문에 벗저지기쉬운化粧이 오래지탕해서 獨特한榮養藥의效果로 過度의벗꺼름을 豫防하고 생생하게 彈力잇는 젊은살결이됩니다。
바른것 갓잔흔 自然의健康美로!
일부러꿈이는 몸맵시는 時節로보아서避합시다、바른것갓잔흔自然의 아름다움을나타나게못는 マスターホームパク며 日本女性의살에第一알맛는 複合微粒子로 餘分의脂肪을 吸收하기때문에 생생한여름의健康美가별늘만치 오래갑니다。
산뜻하게한爽快
マスターバニシングクリーム 마스타—바니싱구리—무

本社廣告部 本局 四〇三〇番 販賣部 本局 六三八一番

少年八月特別號一齊發賣開始!! 집집마다학교마다칭찬이자자!!
「少年」八月號 가나왓슴니다 [illegible]
★少年特別讀物 [illegible] ★世界名作童話 [illegible] 洪蘭坡★大冒險 [illegible] 「少年」八月號 [illegible] 京城府太平通 朝鮮日報社出版部 [illegible]

長篇小說

薄命 (54)

韓龍雲 作
鄭玄雄 畵

세주자 五

순영이와 채란이는 나란히 어깨를 견주어서 장충단으로 갓다 드러가는 머리의 연못을 구경하고 국화 진열한데로 갓다 국화는 조금도 만발하지만 기르기도 잘길넛다

『국화가 한키도하고 조키도하다 어쩌면 저러케 조흘까』

채란이가 먼저 말을한다

『그러기에 말이야 어쩌면, 기르기를 잘길러서 그러켓지』

순영이도 탄복하는 기색을 나타냇다

『기르기도 잘 길럿겟지마는어쩌면 저러케도 조흘까』

『그게야 기르기만 잘하면 저보다 더조흔수도 잇겟지 국화는 마친가지라도 잘못 기루면 꼿도 적고 잘못되는것이아니야 아마 사람도 저럴께야 잘기르면 조흔사람이 될게구 잘못 기르면 나쁜사람이 될게구 그럴께야』

순영이는 꼿을 보다가 이생판을 깨친듯이 국화와 사람의가는점을 말하면서 홍연히 자기의 신세를 도라보기 시작하얏다 채란이가 무슨말을 하랴고 하는때에 중등정도의 녀학생대여섯이 오더니 그들도 역시국화를 칭찬하면서 화분마다 달아노은 표를 보고서 다각기국화이름을 말하고 재배하는 법이라든지 비료는 무슨비료를주고 병이 나는지 버레가 일편무슨 방법으로 어찌한다는것을 말하며 학교에서 실습하든 이야기들을 한다 그러하고 어깨를 겻어서 다른데로 가면서간은 목소리로 창가를한다 녀학생들의 알뜰한것을 유심히 살펴보는 순영이는 그들의 거러가는 뒷모양을 보면서 창가소리를 듯다가 그들이 느티나무밋 뻗쳐에가 안는것을 보고서 고개를 돌녀다 순영이는 다시 국화이름을써부친 표를보앗스나아는자보다 모르는자가 만헛다

『우리도 고만 가자』

하는 순영이는 압흐서져 산으로 가다가 녀학생들을 엇는듯을 도라보더니

『사람도 국화처럼 거르기에엇는것이 아니냐 사람은 마찬가지지마는 저런애들은 학교공부를 햇스니까 조흔사람이 되지안컷니 하지만 우리는기르기를 잘못 길럿스니까 어모양이 아니냐 아는것두 업구 천덕구러저 노릇만하다가 말지안컷니 네나 내나 마찬가지지 뭐야』

하고 채란이를 본다

『[illegible] 따하야 무엇하겟니 네나내나 팔자가 그뿐인게지 어서산에나 올러가자』

채란이는 아름서서 헤죽헤죽올러간다 순영이도 따러갓다 산위에 올라서니 장안이 다뵈이는듯 하엿다 신정유곽(新町遊廓)이 바로 그미테 엿섯다 그들은 사방을 둘러보다가 북악산쪽을 향하야 안젓다

『너 이아래가 어딘지아니?』

하고 채란이가 뭇는다

『어디가 어던지 잘모르겟다』

순영이는 그아래를 둘러보면서 말한다

『이아래가 바루『신마찌』다』

『아 그러나 신마찌가 바루여기로구나』

『나는 저……』

하고 말을 내리다가

『그말은 이따하고 너참 아까 너의집에서 웨 우럿니?』

채란이는 순영이를 보다

『새삼스럽게 그소리는 웨하니?』

『아니야 무슨일이 엿저서 그런다 바른대로 말해라』

채란이는 웃지도 아니하고 전정으로 뭇는다

『글게 웨그래 네가먼저 뭇는까닭을 말해라 그럼 나도 말하께』

『네가 말을 안해도 우는속내를 내가 안다 너 어디로 가게되여서 우럿지?』

『너 어떠케 아니?』

순영이는 놀라제 아니할수가 업섯다

『아는수가 엇지 너 그래서 우럿지?』

『그래 그렛다 말해봐라 어떠케 아랏니?』

『아까 너의집에 어떤 손님여 잇섯지?』

『그래』

『그게 시궁골 경선달이지』

『그래 어떠케 아니?』

『목소리를 드르니 그작자더라 그이가 너를 소개한다고 하지?』

『그래 너 어떠케 그런 속내를 다아니?』

순영이는 여상한뜻에 홍미를 가진다

映畵

그동안 巨津海金剛 外金剛等地를背景으로한 極光映畵製作所 安哲永演出第一回作品『漁火』의撮影을 마치고錄音次로 渡東하엿든 所員一同은 錄音編輯을 完了하고 七月十四日 無事히歸京하엿다 그런데 朝鮮映畵界의 技術的向上과 또는 配給網獲得에라는見地에서 特記할바는 同製作所가 松竹映畵株式會社와 提携하야 松竹大船撮影所應援으로 今番 第一回作品『漁火』에 技術的援助는勿論이고 日本內地 松竹系常設館에 一齊封切配給權을獲得하엿다는것이다 더구나 今番『漁火』엔 松竹大船撮影所의 最高監督인 島津保次郞氏의 監修와 同社의錄音部長으로잇는 掘內敬三氏의 編曲、指揮와 松竹大船管絃樂團의 演奏로 이映畵音質的으로 一層 빗나게할것으로 미더진다 이映畵는 먼저日本內地에서封切케되는關係上 東京試寫會는今月十八日頃이라하며 日本內地封切은 八月中旬以後가 될것이다 그리고 朝鮮內의 封切은의 九月初旬頃이나되리라한다

바렌티노ー一生映畵化

(寫眞은 바렌티노)

無聲映畵時代의世界的名優로이름이놉든〃루돌프·바렌티노〃가세상을떠난지도 十年이된다 그런데이번〃유나이트〃映畵會社에서는一世를風靡하든 世界的美男인〃바렌티노〃一代記를映畵化할計劃을세웟다 어名俳優의一代記에 主演할俳優는 〃소ー냐·헤니〃孃의스케팅의 相對役을마텃든 쟈크·턴이出演하기로되엿다 當代에 燦爛한로맨스를가젓든 바렌티노의生涯만으로도 興味의焦點이되려니와 特히〃바렌티노〃의名役이든〃白帳의저便〃〃血과砂〃〃椿姬〃〃씨ー크〃〃熱砂의舞〃等 無聲映畵中의 巨篇等의 優秀한場面을 추려서 이一代記속에 짜너흘모양이라고한다 往年의『바렌티노』팬에게는 둘도업는 喜報이려니와 아직『바렌티노』를보지못한 映畵팬에게는 새로운感興을 提供하는셈이 될것이다

라디오 JODK

大衆講座 (二十一日午後八時)

圖書館에對하야

總督府圖書館 李在郁

도서관이 사회교육상 얼마나 중요한위치에 잇는가는 더말씀할바업습니다 도서관의기원(起源)과 유명한 도서관의 이야기를먼저 말슴하고서 다음에조선에 잇서서의 도서관의 활동과 그현세(現勢)또는 열람독서로본 독서의추세(趨勢)라든가 시국의변천에따라서 달러지는 독서의경향들을 말슴하고 다음에는도서에대한 취미적 방면이유명한고서(古書)와 진서(珍書)이야기를해보겟습니다

放送

二十一日(木曜)

◇午前六時(東)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衛生메모 日用品時勢
◇同一一時一五分 連續婦人講座 妊娠에서出産까지(四)妊娠의榮養 許英肅
◇正午(東)時報 舞踊組曲集(레코ー드)
◇午後零時三〇分 뉴ー스
◇同四時 뉴ー스 職業紹介
◇同四時三〇分 大相撲實況(國語)(平壤)ー平壤府東町相撲場으로부터中繼ー
◇同六時三〇分 童話『구쇠주먹』(京城) 高在天
◇同六時三〇分 하ー모니카二重奏(平壤) 一、君ケ代行進曲 吉本光藏作曲 二、알젠친의美女 로버ー트作曲 三、詩人과農夫 즙페作曲 四、輕騎兵同 五、아르르의女子 비제ー作曲 李貞植 金箕成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經典解說 韓明世
◇同七時三〇分 뉴ー스 銃後美談 天氣豫報
◇同八時 大衆講座『圖書館에對하야』總督府圖書館 李在郁
◇同八時三〇分 라디오隨筆(一) 自作朗讀 李善姬
◇同八時四〇分 音律 靈山會相 中本靈山、中靈山、잔靈山 가락도드리 上絃 朝鮮正樂傳習所員
◇同九時五分 一、몽노래 二、四節歌 三、梁山道 四、青春歌 五、詩부리 張一朶紅 短簫 崔壽成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뉴ー스 氣象通報 明日曆 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同一〇時一〇分 國語講座(三) 李完應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基礎英語講座
◇正午 (城)
◇午後六時 (東) 빠라에디
◇同七時三〇分 (東) 歌謠
◇同七時四〇 ( )
◇同八時 (東) 講談
◇同八時三〇分 (東) 長唄
◇同八時五五分 (浪花節)

二十二日(金曜)

◇午前六時〇分 (東)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法『냉지짐』 日用品時勢
◇同一一時一五分 連續婦人講座 妊娠에서出産까지(五)『出産準備』 許英肅
◇正午 (東)時報 (東)和洋合奏 一、意想曲『綠色을思慕하야』 高木玄輔作曲 二、小萬幻想曲 野田秋路作曲 三、意想曲『不曾路를차저서』 菊池甲司作曲 江東管絃樂團 指揮 小畑錦浪
◇午後〇時三〇分 뉴ー스
◇同四時〇分 뉴ー스 職業紹介
◇同六時三〇分 라디오學校『日光浴을합시다』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趣味講演(京城)『瀑布이야기』(一)車相瓚
◇同七時夏期文學講座(二)(平壤)『朝鮮文學의古典』光成中學 劉昌宣
◇同七時三〇分 뉴ー스 銃後美談 天氣豫報
◇同八時 玄琴散調와併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併唱 가、短歌 나、唱劇調 申快童 杖鼓 丁元燮
◇同八時三〇分 라디오隨筆(二) 自作朗讀 李泰俊
◇同八時四〇分 피아노獨奏(레코ー드) 一、夜想曲(쇼팽作曲) 二、자장歌 作品五七(코르토) 三、洪牙利狂詩曲 第六番 리스트作曲(레코ー드) 四、前奏曲 C샤ー프短調 라흐마니노프作曲(라흐마니노프)
◇同九時 經濟解說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뉴ー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同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三六) 宋今璇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支那語講座
◇正午 (東)和洋合奏
◇午後六時 (城)邦樂
◇同六時二五分 (大)講演 馬場恒吾
◇同七時三〇分 (東)歌謠
◇同七時四〇分 (自上海)
◇同八時 (東)浪花節
◇同八時三〇分 (廣)俚謠
◇同八時四五分 (東)落語
◇同九時一〇分 (東)時事解說

제니ー家

試寫小感

洋畵輸入問題란難關을압두고오래두고 待望하든바〃마르셀·카르네〃의 第一回 作品〃제니ー家〃가 二十一日부터 市內若草劇場에서 開封되게되엿다 이作品은『클레ー르』와『페데ー』의 助監督으로 잇든三七代靑年監督의 손에서製作된世紀末的頹廢을 描寫한現代悲劇의 一新面이다 멘처음으로 倫敦의 밤거리가나온다 外國에서 六年間 商業을專攻하 二十一歲된 處女〃다니엘〃그女는 愛人과의 사랑이 父母의 反對로 挫折되야 오랫만에 그어머니 제니ー를 차저온다 어머니는 男便이죽은후『제니ー家』라는『나이트·클럽』을 經營해가면서『류시앙』이라는靑年을 사랑하고잇다 어머니의 周圍에는 一流蕩遊의 蕩兒紳士들이 그女를따라 이집에모혀든다 그러나 그女는 靑年의사랑을 엇기위하야 모든것을 버처가면서도 드듸여는어젊은愛人을 빼앗길焦燥에 사로잡혀 지낸다。 어린애 딸『다니엘』이 차저온다 그러나 제니ー는딸을사랑하면서도 自身이 가지는焦燥와 不安과 苦悶에서 헤여날수는업섯다 그리고 意外로 어머니의 行跡을 알아볼양으로 〃제니ー家〃로 갓든〃다니엘〃은 거기서 偶然히〃알비노〃라는 別名을 듯는正體모를 老人의 暴力的誘惑에서 빠저나와〃류시앙〃에게救援을 밧더 택시를 타고 두사람은 巴里郊外로 달린다。 밤이새다 그들은 이腐爛된雰圍氣에서 떠나 새로운 生活의 결을 찻는다 그런데 平素며오랫든〃제니〃家의 共同經營者와 〃류시앙〃은 싸홈끄테 負傷하야 入院하엿다。 病院을차저온〃제니ー〃거기서 비로소 自己의딸『다니엘』과 의사랑을 엇게되엿다제니ー는 여게서 모든것을 斷念하고쏫업는空虛와 寂寞과 孤獨에사로잡혀서『제니ー家』로차저온다

○

以上이 어映畵가 말하는이야기의줄거리다 처음부터 끗까지 映畵는 어둡다더욱『제니ー』로나오는『로ー제』에게는어디인게 모르는 醜化되不快한 感情을가게케한다 그뿐아니라 이作品은 딸에게表示하는 愛情의 濃度 卽自然스러운 本能的感情ー母性愛ー의 表現은 그解釋을 달리하고잇다 四十女의孤獨、苦悶、이것이더크게 作用되여잇다

이러點은 어監督의獨特한解釋의 一面이라고도하겟다 젊은사람이찻는 光明이 世界와 마즈막꺼저가는 靑春、情熱의 末路에對한 四十女의執着이相剋의 兩對立이라는것이 이作品의 가장큰『이데아』요、어느意味에서 自由로히 필수업다는世代의그 頹廢를 보여줌에 이監督의 現實에對한人間性問題가 가로누어잇는것이다。 作品全體로본다면 後半에와서事件의 展開는 緊迫力을가젓고 最後病院場面에서 보여준〃제니〃의 虛無的諦念은놀낼만큼 爛熟하다 그러나 어딘지 作品을 構成하고 制約해가는 洗鍊味가 적어보이는것은第一回作品에다가 너무도 만흔內容을 담으랴는 지나친企圖때문이는듯십다

이때까지의 映畵에서 뵈여준〃클러ー르〃의 抒情的哀愁라거나〃듀비비에〃의 精力的諧謔味代身〃카르네〃의『巴里』는至極히 憂鬱스러워보여『듀비비에』의『商船테나시티』의雰圍氣와類似하다 여기에이監督의 獨自의現代的解釋이잇고 世紀의 暗澹한雰圍氣의感觸이엿다

淡人

東和商事提供〔제니ー家〕
監督 마르셀·카르네
오리지날스토ー리 피에르·로쉐
脚本台詞 작크·프레베르
〃 작크·콘스탕
配役
제니ー 프랑소나스·로제
다니엘 리제트·랑뱅
류시앙 알베르·프레쟝
브노아 쥬알·바렐
알베노소 로베르·드·비강
駱駝 장·루어·바로오